이용섭 시장 과잉 의욕, 행정 신뢰도↓

16일 오전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협약식 플래카드 문구가 세번에 걸쳐 바뀌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광주시는 플래카드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 문구(가운데)를 표기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수정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공동 협약 체결 과정

광주형일자리 일방적 도입 요청했다 노조 반발

협약식 40분간 지연…성과주의 집착 · 조급증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확산을 위한 과잉 의욕이 또 다시 행정 신뢰도 추락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광주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비지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노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을 넘어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일자리실장이 협약식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했다.

그 시각 이 시장은 집무실에서 금호타이어 노사와 함께 협약서 문구를 조율하느라 노조 측을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시장이 비공개로 하는 바람에 광주시 고위 간부들도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였다.

오전 11시40분께 노조측 관계자가 시장 집무실을 불쾌한 표정으로 박차고 나오면서 광주시의 '민낯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광주시가 노조 측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협약서 문구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는 당초 협약서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통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만들기에…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한다"는 문구를 일방적으로 넣었다.

특히 제3항에는 "이전되는 신공장에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노조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아직 공장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금호타이어 노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요구했다가 되레 반감만 사는 모양새를 자초했다.

결국 노조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끝에 광주시는 협약서에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시장의 조급증은 협약식 플래카드와 인사말에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당초 플래카드에는 광주형 일자리 문구가 없었으나 두번째 플래카드에는 넣었다가 노조의 반발로 다시 뺐다. 플래카드 문구가 세번에 걸쳐 바뀌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이 시장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금호타이어 노사가 내 일처럼 여기고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도 준비했으나 끝내 가슴속에 묻어둬야 했다.

이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대한 진념은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의도치 않은 혼선과 오해, 행정의 신뢰도 추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시의 성과주의, 조급증은 수 차례에 걸친 데드라인 제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전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시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 하태정 수석부지회장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장 이전과 관련한 협약식에 참석했는데, 신공장에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 관광지 순환 '남도한바퀴' 특별 출시 겨울 테마상품 '인기'

내달23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씩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출시한 특별 '겨울 테마상품'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금호고속은 전남도와 함께 운영하는 '남도한바퀴' 겨울 테마상품이 출시돼 오는 2월23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씩, 총 24회 운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겨울 테마상품'은 남도의 낙조와 야경을 테마로 12개 상품이 운행 중이며, 이용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9900원이다.

이 상품은 금호고속이 지난 5년간 남도한바퀴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출시했다.

운행 첫 날인 지난 12일에는 전체 탑승인원은 178명에 회당 이용 인원은 44.5명에 달한 가운데 전체 코스가 매진될 정도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겨울 여행객을 주요 타깃층으로 삼은 '남도한바퀴 겨울 테마상품'은 1월 현재 총 12개 코스 예매율이 99.4%를 기록했다. 2월 예매율도 85.4%를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겨울 속으로 떠나는 남도한바퀴와 함께 고객들이 따뜻한 겨울 힐링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 민선 7기 고용여건 '호전'

고용률↑ 실업률↓

지난해 전남지역 고용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남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보다 0.3%p 높아지고, 취업자도 96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 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보다 0.4%p 낮아졌으며, 실업자도 2만 8000명으로 4000 명이 줄었다. 특히 2018년 12월 고용통계는 전남지역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2월 전남의 고용률은 63.1%(국제노동기구 기준)로 2017년 12월보다 1.3%p 높아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취업자도 97만 1000 명으로 전년보다 1만 8000 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2017년 12월 2.7%보다 1.1%p 줄어든 1.6%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으며, 실직자 수도 전년보다 1만 명 줄어든 1만 6000 명이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37만 7000 명으로 전년보다 2만 3000 명 많아졌고, 임시근로자는 6000 명이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2018년 12월 광공업과 건설업 부문에서 2만 1000 명이 많아져 민간부문의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공공부문과 함께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전남 고용지표 중 두드러진 점은 2018년 1분기 13.2%, 2분기 13.8%까지 뛰었던 청년실업률(15~29세 이하)이 3분기 8.4%, 4분기 5.0%로 대폭 감소한 부분이다.

청년실업률의 감소는 청년들의 타지로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구, 1인1자격 취득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광주 동구가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돕는 '동구민 1인1자격 취득 프로그램' 수강생을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동구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평생학습 실현을 비롯해 지역민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도우이트(화분제작)지도사 ▲푸드아트상담지도사 ▲칠보공예지격(초급) ▲규방공예(3급) ▲냅킨아트자격(3급) 등 총 5개 반이며 반별 20명씩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재료비·교재비는 무료이며, 자격증비는 별도다.

서구,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광주 서구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10명의 예방진화대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오는 24일까지 모집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 서류전형과 체력검정을 거치게 된다.

선발은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24일까지 서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선발은 오는 29일 예정이며, 선발된 진화대원들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의 예방사업과 산불진화 및 뒷불 감시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남구, 경로당 · 주민 대상 치매 예방사업 본격화

광주 남구는 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한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사업을 진행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경로당 165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인지 강화 교실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먼저 경로당 인지 강화교실은 75세 이상 등 치매 고위험군 비율이 높은 대촌동과 월산동, 사직동, 봉선1동 등 4개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구는 경로당 인지 강화교실에 대한 호응이 좋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5곳에서 실시했던 이 프로그램을 올해 총 15곳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행정 능률 높인다

광주 북구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 권익 보호 및 행정 능률 높이기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반복민원, 집단민원, 폭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사전예방·대응·사후관리시스템 3개 분야로 나누고 시설개선, 매뉴얼 마련, 협력체계 구축, 피해지원 등 총 8가지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청에 근무하다 보면 특이민원, 집단민원 등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많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직원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제5기 주민리포터단 모집

광주 광산구가 '제5기 주민리포터단'을 모집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14일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제5기 주민리포터단의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글?사진, 칼럼, 포토스토리, 시나리오, 카툰 등 자유롭게 콘텐츠를 작성해 광산구 서브포털 '투게더광산톡(news.gwangsan.go.kr)'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는다. 우수 콘텐츠는 월간 광산구 소식지인 '광산구보'에도 실리게 된다.

주민리포터는 광산구의 주요정책이나 행사, 축제, 마을이야기, 기관소식, 명소 소개 등 광산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재로 다룰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구정뉴스 영상 리포터로 출연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 인 설 립 ■기 장 대 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 업 진 단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 미래창조 ·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